

## 20세기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 序章: 아시아에서 근대 주체는 개인인가?

윤상현

이 연구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기초하고자 한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하고자 하며, 또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기에 사고체계·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들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 글은 19세기 후반 동학의 인(人)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갑오동학 혁명으로 확산되었던 인간 관념이 이전 시기와 다른 차이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수운 당대의 조선 사회가 한문과 언문이라는 이중언어적 상황, 주자학적 질서의 세계와 일반민의 생활세계가 중첩되어 있었다는 정황에 주목하였다. 조선 말기 한자문화권의 성리학 주류는 극단적 주리론이 감행되면서 고도로 이성주의적 천(天)관·인간관이 강화되고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을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다. 반면 한자와 다른 한글은 그 어원상에서 사람간의 관계성과 감정을 중시하는 심상을 갖고 있었다.

서구에서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자조(自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보다 공공적이면서 평등지향적인 주체이고 동시에 감성적·영성적이라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주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이면서 영성적 주체는 근대적 산업사회에서 지나칠 만큼 파괴되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공적이고 집단적 측면이 강하게 남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종교의 형태로 '민족'의 형태를 취하는 하나의 경향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여기에는 영성과 그에 기초한 '나'의 독자성이 약화될 위험성이 내재해 있었다.

윤상현은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이며 SNUAC 방문학자이다. 20세기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와 한국 근현대 사상사 구조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동북아시아 비교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논저로 「동학의 인(人)개념-『용담유사』를 중심으로」(『동방학』49, 2023), 『4월 혁명의 주체들』(공저, 역사비평사, 2020),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 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의 '개인' 인식」(『인문논총』 76, 2019), 『동아시아의 국가주의-기원과 비교』(공저, 경제인문사회연구소, 2016),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동국사학』 57, 2014) 등이 있다.

Date & Time: October 24,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